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스, "국가부도" 유럽재정위기는 진행형

전세계, 그리스 경제 사태에 파장 우려 다양한 시각 속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2:6-7)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국가부도)를 기정사실화하고 디폴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 사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은행 JP 모건 채이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카스만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F) 연차총회의 한 토론회에서 "그리스는 파산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 문제해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카스만은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조율되지 않고 산발적인 반응이 역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공포를 키웠다"고 말하고 그리스 문제해결에서 드러난 투명성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소로스 펀드의 조지 소로스 회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서 "그리스가 디폴트를 피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로스 회장은 "금융시장을 확신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디폴트 가능성에 준비하고, 이런 준비들은 은행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베니젤로스 에반겔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전날 그리스 공영방송에 출연, "그리스는 '결코'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그리스가 지금도 유로존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디폴트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출처:연합뉴스 종합).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11:7)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

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경제 불황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그리스 땅을 바라보며, 온 열방이 경제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직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위기와 절망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그 비밀을 드러내신 십자가를 높여 찬양합니다. 썩어질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였던 인생들이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육체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그날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은혜의 때에,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던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가장 완전한 십자가 자비로의 초대를 외치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그리스 땅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24:365 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4면
복음기도동맹 집회 안내



▶ 인터뷰 5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 이하은 자매



김용의 선교사 컬럼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주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짧은 기록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큰 진리를 드러내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린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해프닝은 평범한 보통 어머니들이 한 번쯤은 겪어 봤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것과 다른 때가 아닌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람입니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어린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영적 메시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절기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유월절의 핵심인 구원, 그 구원을 행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눅 2:43,44)

우리 삶의 큰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상은 주님과 같이 가고 있지 않는데도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 모두가 인정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기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이기에, 목회를 하고 있기에,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에 그 일 자체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스스로 떳떳하니까 ‘주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일은 내가 하든, 하지 않든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은 내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되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부하가 링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리이시니



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을 떠나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갑자기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가는 순간보다 훨씬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당황하여 예수님을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찾았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눅 2:49)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 길이 궤도를 벗어났구나.’ ‘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들었구나.’ ‘내 마음이 냉랭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곳을 헤매지 말고 그분이 계시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멀어졌는지 돌아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품으로 뛰어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주님 없이 가는 길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이 동행 중에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생명의력

‘믿음을 버려야 하는 자유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투르크메니스탄 / 샤겔디아타코프 Shageldy Atakov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살전 1:3**

“저 놈의 정신을 망가트리든지 죽여 버리든지 알아서 해!” 그 거리의 설교자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관리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1940~2006) 대통령이 2000년 12월 13일 사면령을 발표했다. 이에 샤겔디아타코프도 역시 자유를 제안 받았다. 단,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슬람 신조를 암송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아타코프는 사면 제의를 거절하였다.

아타코프는 거리 설교를 중지하라는 정부 관리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1998년 12월에 체포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탓에 추가로 2년의 징역형을 더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가혹한 매질을 당했다.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린 자녀들이 보드라운 손길로 제 아빠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

2000년 2월, 그의 아내와 다섯 자녀들은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 카크카라는 외딴 마을에 연금되었다.

2001년 2월,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그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면회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의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고, 간과 위가 많이 상해 있으며, 황달을 앓아 잘 걷지도 못하는데다가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그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주,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영양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영혼은 고독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잇따라 찾아오는 질병들을 견디면서 평화 없이도 살아 갈 수 있다. 우리 영혼은 낙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쇠약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없이 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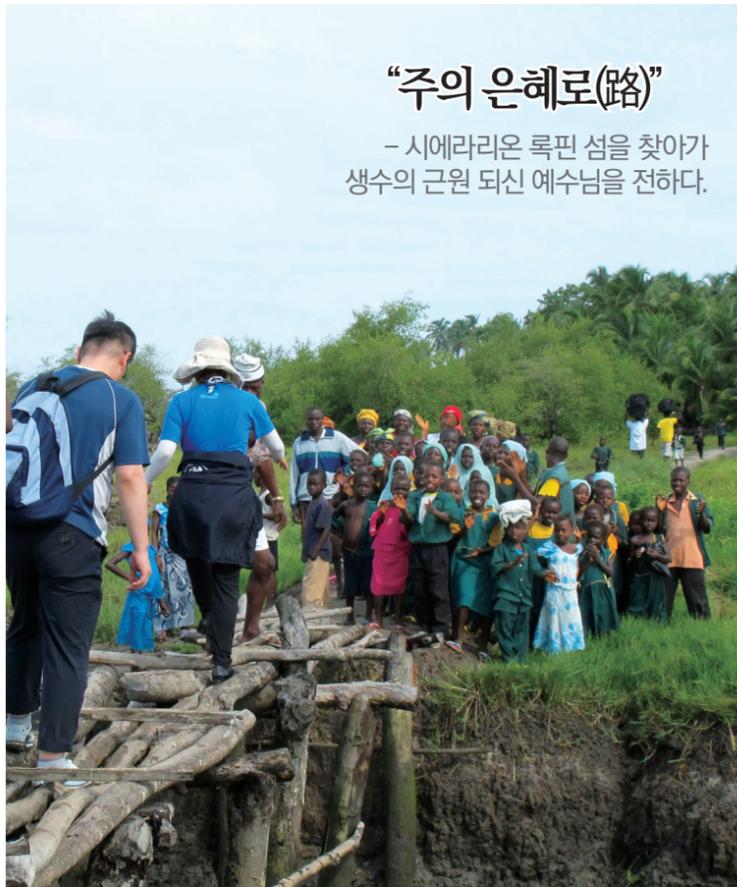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힘을 달라고 구하라! 의욕을 불어넣어 달라고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소망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판)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주의 은혜로(路)”

- 시에라리온 록핀 섬을 찾아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다.



19일간의 일정 중 첫 사역지인 록핀 섬. 오지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아웃리치 팀은 배를 타고 늪을 건너 힘들게 마을입구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올 것을 이미 알았던 걸까?’ 현지 아이들은 오랜 여정의 지친 팀들을 향해 환영의 박수로 응원해 주었다. 열기설기 엮어 만든 임시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생각도 있었으나 모든 걸음을 신실히 인도해주시는 주의 은혜로 오랜 기간과 가뭄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느니라’ (시 107:30)

사진 : WMM / 글 : 최종완

십자가만 사랑하며

교회 개척 전도여행을 다녀오다 1

“생애 첫 노숙을 경험하며 얻은 믿음의 선물”



서혜진 선교사 (티앤알미션)

원형교회의 회복을 위한 교회개척 선교단체 티앤알미션(대표 박종진 선교사)으로 헌신한지 1년을 앞두고 교회 개척 전도여행으로의 출정 명령이 내려졌다. 팀이 구성되고, 지역도 결정됐다. 대도시 대구였다.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주님이 도시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까? 출발하는 아침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간식거리와 주님 주신 재정으로 차비와 남은 재정들을 계산했다. 얼마로 무엇을 사먹을 수 있을까. 다소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인천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앞으로의 상황들을 가늠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 노숙을 한다면, 29년 평생에 처음이다. 아니면 숙소를 허락해서 어디에선가 묵게 하실까? 정말 굶게 하실까? 루디아를 만날까? 함께 하게 된 아이들을 주님이 과연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도시의 영혼들은 강박할 텐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 막연한 교회개척 전도여행의 그림을 그리며 대구행 버스를 타고 부르신 그 땅으로 향했다.

내려가는 차 안에서 개인 약속의 말씀을 되새겼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9:14).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게 하실지 두려운 말씀인 듯 느끼면서도 아멘하게 하셨다. 그러던 중, 떠나기 전날 함께 모여 지역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것보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도착한 터미널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상을 나누며 것으로 대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득 재미난 생각이 떠올랐다. “대형마트에서 시식하기. 남은 재정으로 5일을 버티며 살 수 있는 법,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챙기기. 등등” 그저 치기어린 생각으로 지나치려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사와 분향을 드리고 있는 일이었음을 말씀하셨다. 존재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결단케 하셨다. 어떤 모양의 허락하신 상황이라도 아멘 하여 나

가도록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찬양소리를 들으셨던지 갑자기 술 취한 40대 남자 한 분이 다가왔다. ‘예수가 좋다오’ 찬양을 불러달라고 한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며 말씀하시는 아저씨. 그러다 뜬금없이 “나 도둑놈이야”라며 자신의 도둑질 전과를 털어놓았다. 우리도 답했다. “우리도 똑같은 도둑놈이에요!”라고. 함께 간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갔다. 맨 정신으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기 과거의 삶을 술에 의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아저씨의 만남을 시작으로 시작된 전도. 어떤 할머니는 ‘내가 자식이 몇 명인지 왜 묻는 건데? 말씀하시며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은 우리 일행을 외면하셨다. 스마트폰 버튼을 분주하게 누르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전도지를 건네자 그는 내 손을 막았다. 그리고 “저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말하며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젊은 아주머니들은 ‘귀찮다’는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전도지를 받아 마자 내가 보는 앞에서 던져버렸다. 이들의 차가운 반응에 안타까우면서도 무안하고 민망하여 참 썩쓸했다. 이들의 반응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대한 반응임을 본 순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도착 첫날 저녁. 말씀기도와 숙식할 장소를 위해 주변을 찾던 중 근처 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다. “오 주여! 첫날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이렇게 장대비입니까?”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공원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다. 공원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내렸다. 가까운 건물에 잠시 몸을 피해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퍼붓는 빗물에 운동화와 바지는 허벅지까지 젖었다. 팀원 중 한 사모님이 어린 딸 예수를 업은 채로 아이들이 피할 곳을 찾아나섰다. 그 모습을 보며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공원 안에 비를 피하고 잘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그나마 괜찮은 곳을 찾았는데 혹시나 해서 문 닫는 시간이 있는지 물었더니 저녁 9시 30분에 닫는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주님, 우리를 오늘 어디에서 묵게 하려 하십니까...’ 속으로 계속 주님께 툄툄

대며 기도했다. 결국 비를 피해 근처 병원 앞 계단에서 잠시 휴식하고 말씀기도 한다고 멈춘 곳이 그날 밤 숙소가 되었다. 전도여행 노숙 5일 동안 통틀어 가장 최악의 숙소! 병원 앞은 인도, 인도를 지나면 4차선 도로.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간간히 걸어다니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 상상조차 안했던 주님의 이끄심에 첫날 저녁 병원 앞에서 어떻게 말씀기도를 했는지 가물가물하다. 고백은 엄청 화려했다. 그러나 당혹스러웠다. 생애 첫 노숙을 기념하며 헛웃음이 자꾸 나왔다. ‘허허 정말 이런 거였어? 진짜 노숙하게 하시네.’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믿음 아닌 반응들로 그 자리에 있었다.

갑자기 전도팀이 떠나기 전, 단체 대표이신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떠올랐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존재였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랬다. 고작 하루짜리도 안 되는 믿음이었다. 나는 믿음의 부도를 맞았다. 그 새벽, 주님께서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믿음을 내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전도여행의 첫날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발걸음을 이곳저곳 옮기며 때론 허락하신 버스를 타고 장소를 옮겨가며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됐다. <계속>

선교통신

부탄, 불교국가에 "종교 자유의 바람"

- 전문가들, "올해 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



불교의 나라인 부탄에서 100년 왕정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라디오방송 등 크리스천 미디어가 기독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문상철 원장)은 지난달 13일 “부탄 공식어인 종카(Dzongkha)어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세 번 15분씩 방송되고 있다”면서 “주로 부탄 내 기독교인을 격려하는 내용이지만 최근엔 타 종교인들도 큰 관심을 갖고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CCC의 ‘예수영화’도 부탄 내 5개 언어로 제작돼 상영되고 있다.

문 원장은 “지난 2008년 의회민주주의 도입으로 종교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교회는 여전히 불법 단체로 규정돼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교 박해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단체인 컴파스 디렉트는 “부탄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부탄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상 불교를 국가의 영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1면에 이어 - 그리스는 어떤 나라인가?

신화의 땅 그리스



면적 13만1천km²(1.3배)
인구 1천100만(0.2배)
도시화 61.4%
종족 그리스 85.9% 유럽계 8.5% 기타 5.2%
종교 기독교 91.5% 무슬림 5.8% 무종교 2.7%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Infographic with four panels: 1.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든 헬라 문명의 후예들이 사는 나라다. (Ancient Greece ruins) 2. 그리스 정교회의 반대로 복음주의 교회는 핍박받고 있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Watering a plant labeled '교회') 3. 그리스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복음화된 나라이지만 현재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인구가 단지 2%에 지나지 않다. (A van with a sign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닌 바다로 캠핑 갑니다.') 4.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에는 '마케도니아 환상'이 필요하다. (A woman holding a flag 'SOS' and a sign '우리를 깨워주세요.') (출처: 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기획 - 복음기도동맹 집회 안내

연합집회 온라인 접수 개시... 하반기 집회일정 소개

“복음기도동맹, 다시복음앞에 집회 인터넷 사이트 개통”

www.gospelprayer.net



초대의 글

복음기도동맹이란

복음기도동맹 선언문

복음기도동맹 행동강령

복음기도동맹 연혁

초대의 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대로 충분한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 거룩한 신부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교회에, 다인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에 내일의 미래가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을 삼든지 그대로 가두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손은 내일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여 할 때이다.

주님은 호새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여 돌아와서 우리를 일으켜서 도르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에 별거없는 자의 심정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
다시 복음 앞에(Return to the Gospel)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의 기쁨소식을 파수꾼이 불러주는 성벽위의 전쟁 상황을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정에 참여할 승사를 부르는 가슴 뛰는 모험소식을

오는 12월 하나님의 군사로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결단하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개통됐다.

복음기도동맹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합집회 참가 희망자들의 온라인 접수를 받는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메인 주소는 www.gospelprayer.net.

동맹 사무국 관계자는 “다시복음앞에 서는 길

는 어린이는 보호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호자 한 명당 한 명의 어린이를 동반할 수 있다.

사무국은 그러나 현재 제한된 시설에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박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숙박시설은 지방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이번 연합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퇴근하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온라인 접수기간에는 또 장애인 및 외국인에게는 섬김이와 통역섬김 등을 섬길 수 있는 전문섬김 영역의 자원봉사자의 신청도 받는다.

동맹 웹사이트에는 올 하반기 '다시복음앞에'를 주제로하는 전국의 다양한 집회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10월의 관련 집회는 순회선교단의 순회집회가 대전, 부산, 대구, 전주,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8면 참조).

한편, 이번 연합집회 이후 복음과기도의 증인들의 다양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담겨될 복음기도동맹 사이트 개발에는 전문 웹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이트 개발에 동참하고 있는 이은영 자매와 김진균 형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직 주께 하듯 일을 하라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비 대신 현금제 운영

장애인 및 통역 등 전문 섬김이 모집

3박4일간 숙박자는 지방거주자로 제한

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이 연합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현금제로 운영하는 이번 대회의 특성상,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참가자수를 사전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온라인 접수의 의미를 설명했다.

3박4일 동안 진행될 이 연합 집회에는 일반인(청소년 포함)과 함께 다음세대(초등3~초등6학년)가 참여할 수 있다. 다음세대로 구분되

다음세대 스토리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주님 쪽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술 담배를 끊기로 결단한 한 청소년의 고백

광야의 풀과 나무는 새벽이슬을 먹고 자란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양분이 그들에게 허락된 전부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다음 세대인 청년에 대해 새벽 이슬과 같다고 했다. 이 땅을 부요케 하는 축복의 통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열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 복음에 부딪히며 좌충우돌하며 진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소개한다. <편집자>

「느헤미야52기도」를 하면서 대구에서 올라온 한 형제와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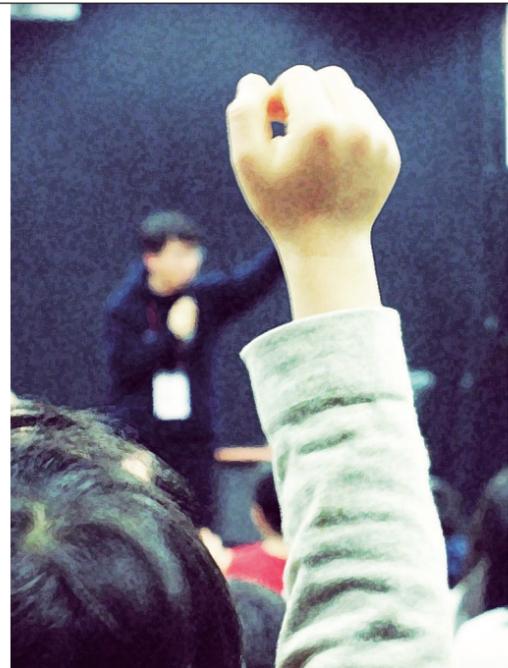
“다음 복음수련회에서 만날 때까지 서로 담배 끊기로 해요. 형」 나 또한 노력중이어서 서로 다잡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담배를 피고 말았습니다. 일일기도 학교에 참석했을 때 내 죄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없었고, 누가 눈치 챌까봐 행동하는 것도 거짓으로 포장하며 어떻게든 티를 안내보려고 노력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가족들과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육체의 만족과 믿음에 관한 괴로움 사이에서 갈등하다보니 점점 더 죄를 숨겼고 오히려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

만 수사관 출신인 아버지에게 꼬리를 잡혔고,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금니를 꼭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때리지 않으시고 “이제 너도 복음을 아니까 너 스스로 증인들 앞에서 죄 고백하고, 내가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안 맞는다니 좋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욱 더 괴로운... 그런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술 담배를 한 번에 끊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은혜로 해주신 것이고, 너의 경우는 주님이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 죄들을 정리해 나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에 성공한 아버지를 부러워만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또 한가지 주님이 제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저의 지난 삶의 태도를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교제



를 통해 ‘아브라함이 목적이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학생이라는 현실적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주님을 위해 준비된 모습으로 서리라 결심했습니다. 또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자세로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아는 부모님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넘어지더라도 주님 쪽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죽으면 죄가 살아난다. 말씀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출처: ACCESS 청소년 문화복음학교)

김성익 형제(19.고3)

- 요즘 근황과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대학교를 입학하고 1학기를 다니다가 휴학한 상태예요. 제 전공이 사회복지학인데 아직 한 학기밖에 하지 않아, 복음 안에서 이 학문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등록금 문제도 쉽지 않아서 일단 휴학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제가 휴학기간 동안 영어나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 한켠에는 어차피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일단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휴학기간 동안 특별히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닌데 선교관학교 섬김이를 함께 하면서 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회자 자녀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주위에서 많이 칭찬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보니 더 칭찬을 듣기 위해 거기에 저를 맞추게 되더군요. 지극히 선한 자아를 갖고 살았죠. 초등학교 때는 조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활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저도 점점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던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반에 전교 1등 하던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오해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친구가 많아던 제가 그 친구를 오랫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받게 했어요.”

- 친구를 미워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보다 더 주목받는 그 친구에게 질투가 나서 더 그 친구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 여기면서 계속 따돌렸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거짓말을 하며 그 친구를 어렵게 했어요. 나중에는 선생님들에게도 그 친구를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 되었고 그런 행동들이 계속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죄 된 본성이 마구 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3 때 복음

예요. 강의를 메모했던 노트를 다시 보면서 로마서, 에베소서 읽으니 말씀의 앞뒤 내용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엄마에게도 나누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중에는 고3이다 보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속상하기까지 해 지더군요. 사실 고3을 마치고는 별로 읽지 못했지만요.”

- 선교훈련은 어떤 계기로 받기로 하셨나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 훈련과정에 참여한 이후 여러차례 설기했어요. 저는 별로 기대감 없이 ‘한 번 참가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매주 강의 시간마다 저를 깨뜨리셨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복음을 알았다는 교만함과 주님 앞에서 나타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경외함 없이,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 에티오피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완전히 저를 절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죠. 느껴 미야52일기도 때 아무런 소망 없는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정말 복음학교 이후에 선교관학교를 바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 흉악하게 교만한 자로 살았을 거 같아요. 완전한 주님의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 비전 트립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세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에 다녀왔어요. 매우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추웠어요. 그 땅의 현실을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한 거예요. 저는 먹는 것, 입는 것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도 약속의 말씀은 에스겔 34:12 흠어진 이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잘못 받았나 하며 실망할라치면 주님은 매순간 제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둔하여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농사를 짓다가도 저희가 가면 일을 멈추고 저희 얘기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렇게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 주님의 꿈을 꾸는
이하은 자매(빛과소금의교회)

스무살. 이제 갓 청소년의 티를 벗고 사회에 첫 발을 댄 아직은 꿈 많고 타인보다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앞에 깨어진 이의 모습은 어느 스무살의 모습과는 달랐다. 자신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꾸고 자신이 아닌 주님께 집중하는 증인의 모습. 아직 어리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하은 자매(20)를 만났다.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사과를 했어요. 내가 복음수련회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너한테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엄청 울면서 얘기했고 그 친구도 함께 울면서 괜찮다고. 다 지난 간 추억이라고 해줬어요. 지금도 그 친구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었겠네요. 복음 수련회가 삶의 큰 전환점이 됐군요.

“복음수련회는 복음학교를 다녀오신 엄마를 통해 알게 됐어요. 엄마는 2007년에 복음학교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고, 이후 선교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동생도 복음 앞에 서기 원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 복음학교에서 훈련을 받기 원하셨는데 제가 계속 가지 않고 버렸죠. 그러던 중 청소년 복음학교가 중단되더군요.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복음수련회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고3인데도 엄마의 권유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십자가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정도였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때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짓던 죄들이 싫어지고 마음에 계속 찔림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안 읽던 성경을 읽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사실 복음 이전에는 알 수 없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았는데 결코 만족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더군요. 너무 신기했어요.”

- 그 이후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부모님과 동생, 주위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안 읽던 성경을 읽으니, 갑자기 왜 그러냐며 신기해하셨어요. 동생은 제가 복음 얘기만 하니 재미없다고 핀잔을 주었죠. 주위 친구들도 고3이라 그런 곳에 가도 되겠냐며 걱정했는데 다녀온 후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많이 놀라고 의아해했죠. 사실 대학도 가기 힘들었는데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주님이 공부도 하게 하셔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복음의 설계도와 조감도라는 로마서, 에베소서를 다시 보았어요. 전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

-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네요.

“원래는 이번에 복음사관학교(GNA)를 가고 싶었어요. 계속 복음의 걸음을 걷고 싶었고 가장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아버지의 추천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면 끝까지 신뢰하고 전심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믿음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내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선교관학교 섬김이로 섬기면서 일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 요즘 복음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 들려주세요.

“최근 훈련을 받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매순간 제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신다는 사실이 너무 큰 힘이 되는 진리였어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만 여겨지던 개념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실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늘 죄와 친밀하고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지 깨닫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이기고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 끝으로 기도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주님이 이룬 나이에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요. 이러한 삶이 멈추지 않고 교회나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존재의 삶이 실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저를 학교에 가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삶 - 나의 중보적 삶

목마름은 은혜의 출발점!

“복음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말라야 한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중보기도학교. 훈련의 끝을 바라보며, 나의 중보적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위해 그 간 기록했던 15주의 에세이를 찬찬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의 솔직한 결론은 모든 훈련 과정과 땅 밟기 기도원정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몇진 고백들이 결코 오늘의 은혜와 고백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중보기도학교훈련을 마치게 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기도의 틀 정도는 갖추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역시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는 기도를 할 수도, 말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적 죄인, 병든 자아라는 나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죄인 된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상황이 절망스럽고, 이러한 반복된 사실이 서서히 짜증이 났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본 땅밟기를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해주셨다.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주님은 더욱 십자가를 또렷이 내 심령가운데 새겨 주셨다.

"해진아, 너로서는 불가능하기에 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단다. 그리고 너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산

이 십자가를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나를 매일 복음 앞에 세우실 주님만 더욱 신뢰하게 하신 것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는 '나'에 대한 더 깊은 죽음의 자리와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며 왜 매번 똑같은 십자가와 복음, 말씀과 기도라는 내용이 반복될까 홀로 교만하게 판단하고 의아히 여겨왔던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 반복학습으로 허락하셨던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된다.

기도의 자리는 십자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나 잡아먹고 내가 살도록, 자기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고, 또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왕 같은 제사장,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기도는 나의 화려한 기도 실력이나 나의 어려움이 아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며, 이 말씀이 먼저 나를 관통하여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으로 결론을 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캄캄해 보이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근거와 터를 허물어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결국 주님 전부를 얻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 넘어질 때도 있고, 죄로 얽매이기 쉬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로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취하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한 부도와 과산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복음과 기도로 결론 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 안에서 일하실 주님만 기대한다.

기도를 행위로 여겨 기도의 자리가 늘 부담스러웠던 내게 이제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대한 존재적 반응이다. 나 하나의 구원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에 이제 나와 더불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운명임을 깨달아, 2천년 전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며 나아갈 것이다.

기도의 목마름 가운데 시작하였던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게 되면 이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더할수록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깊어간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 목마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목말라야 한다. 복음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르고, 그래야만 말씀 앞에 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목마르게 하는 은혜에 감사하다. 또한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감사하다.

박해진 자매

원어로 읽는 말씀의 샘 3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레하즈키르 하마즈키편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하마즈키편)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이 땅에는 우리에게 힘이 될 것도, 의지의 대상도 없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기에 힘이 되신,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분을, 그 분만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분의 이름을 가지고, “레하즈키르”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레하즈키르” 한다는 히브리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한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탄식하며 울부짖는다” 그런 말이다. “레하즈키르”한다는 말은, 시인의 탄식하며 울부짖는 애가이다. 마음을 토해내는 슬픈 “기도 용어”이다. 시인의 원통함을 하나님을 붙들고 토해내며, 그 분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통하는 간구이다.

이 아름다운 히브리 단어, “레하즈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하나가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 말씀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이다. “레하즈키르, 하마즈키편” “절규하는,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분을 갖고 싶어하는, 그 분을 탐하는, 시인의 애절한 기도이다. 애통함과 눈물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게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의 키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귀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숫군이다. 진리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이 악한 시대를 지키는 파숫군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의지와 뜻을 굴복시켜가는 사람들이다.

왜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레하즈키르”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나도록, 그 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왜 울부짖어야 하는가? 그 분의 이름이 “기억하시는 자, 잊지 아니 하시는 자” 이시기 때문이다.

김명호 목사(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 소장)

따라읽는 말씀기도(24) -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심

-사무엘하 22장-

이 코너는 본문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다윗이 수많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것은 부귀영화나, 권력, 명성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



(삼하 22:30-35)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되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 도다

사무엘하 22장

이제 다음 기도제목을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1.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와 바위와 산성이 되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에야 배울 수 있다. 전쟁을 피하고 자신을 이 전쟁과 무관한 자로 여기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쟁을 배우고 그 전쟁에 용맹스럽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누리도록 기도 하자.

2.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에 열방이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전쟁하는' 주님의 군대로 속히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출처: 기도24·365 제공>

“기도24365, 기도달력 10월15일부터 바뀐다”

- 2011년판 세계기도정보 수록, 국가 등 대폭 변경돼
- 기도자들 개인 기도골방이나 팀기도달력 확인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기도 24365 기도자들의 기도달력이 2011년 10월 15일을 기해 전면 재조정된다.

기도24365본부는 지난 10여년간 유고연방의 해체 등 세계에서 일부 국가가 사라지고 신생국이 탄생하는 등 전체 국가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기도정보 수록국가가 달라져 변경된 기도달력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3년 4월부터 매일 하루 한 시간씩 나라와 대륙 등을 위해 참여한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해온 기도24365는 이같이 변경된 국가정보를 반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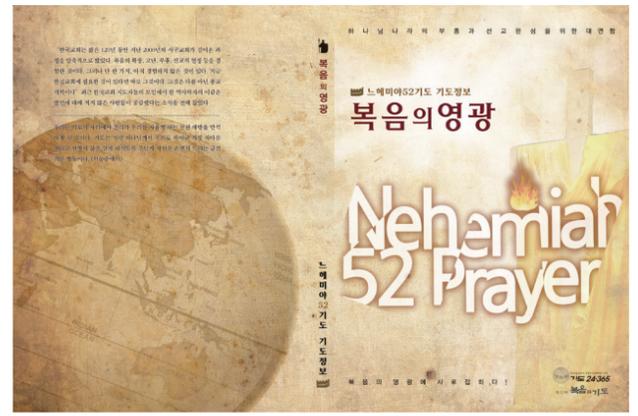
세계기도정보 2011년판(사진)을 본격 적용하기로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기도24365는 그동안 2001년 발간된 세계기도정보에 수록된 국가 순으로 기도달력을 제정, 기도시간에 적용해왔다. 이번엔 변경된 기도달력은 기도24365 웹사이트의 자료실 '기도달력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도24365본부는 또 이같은 기도달력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의 기도달력을 변경하는 등 디자인도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기도24365기도자들은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 개인골방이나 팀기도달력을 통해 개인기도시간에 기도할 나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계기도정보를 발간하는 죠이선교회 출판부는 기도자들의 편의를 위해 활자를 대폭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1권으로 제작됐던 두툼했던 책을 총 4권으로 분권한 한글판을 최근 출간했다. 새로운 기도정보 책자는 10월중 시판될 예정이다.

☎ 032-75-24365, 010-387-24365, www.prayer24365.org

기도정보집 '복음의 영광' 출간



기도24365의 느헤미야52기도를 위한 새로운 기도정보 책자 '복음의 영광'(사진)이 최근 출간됐다.

하루 24시간 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기도정보 책자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52일기도를 기점으로 본격 사용된다.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는 이 책자는 '복음의 영광은 당신에게 실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이다.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하려면 느헤미야52팀에 문의하면 된다. ☎ 070-7417-4366, 010-4192-4365 / E-mail : 24365intl@paran.com. 구입문의 ☎ 070-7417-0408. 총 192쪽 | 값6,000원

선교정보 네트워크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말씀과 기도로 현장 적응력 갖춘 단기선교사 파견 “찬송가악보 만들러 선교지로 떠나요!”



“아랍문화권 사람들은 악보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지어로 된 찬송가악보를 만들어 줘야 돼요.” 선교현장은 다양한 필요가 있다. 후방에 있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의 사역을 섬길 사역자들이 필요로 한다.

선교인력은행 요셉의창고 미니스트리(JSMIN)는 최근 이같은 아랍문화권의 필요성을 인지, 현지어로 된 악보를 만들어 찬송가를 가르칠 수 있는 단기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달 중미 도미니카공화국으로 2개월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다. 복음과 기도의 증인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선교단체 JSMIN은 최근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단기선교사를 다양한 영역과 기간으로 선교현장에 파송하고 있다.

이 단체 유정덕 선교사는 “선교지의 다양한 필요를 섬기기 위한 복음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군사들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년여의 기간으로 파송하고 있다”며 이같은 단기선교사의 영역과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근 북아프리카로 두 명의 싱글 자매로 구성된 단기선교팀을 파송했다. 이들이 이 지역에서 담당하게될 사역은 현지 선교사의 자녀(MK)의 교육. 이곳에는 최근 단기선교팀의 정탐

결과를 토대로 파송 단기선교사가 결정됐다. 이들의 사역기간은 6개월.

이에 앞서 JSMIN은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에 ‘느헤미야52기도’를 위한 5명의 단기선교사를 기도지원금 자격으로 2개월의 일정으로 파송했다. 또 태평양의 사이판을 비롯 국내 이주민을 위한 사역 등 다양한 영역을 섬길 단기선교사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파송했다. 특히 이 단체는 현장을 다녀온 단기선교사 또는 단기선교 정탐팀의 선교보고를 통해 현장 사역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선교계에서 신규 선교인력 충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 자체가 열방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시각이다.

한편, 유 선교사는 “다양한 전문영역의 선교현신자들이 현장에서의 공동체 경험과 경건생활에 대한 훈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된다”며 “단기 선교사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르신 분을 주목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볼 때 초점과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교지에 온전히 헌신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 070-7417-4156~7, 010-2389-4156, cafe.naver.com/jsministry

케냐 난민수용소, 기독교 소수 종족 심각한 학대에 시달려

강간, 폭력, 차별대우 심각... 생활용품 필요

수용 가능한 인구에 비해 무려 5배 많은 44만여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는 케냐 다담 난민수용소에서 에티오피아 소수 종족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냐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매일 1000여 명의 난민이 유입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강성 소말리 회교도인 반면 기독교 배경을 가진 에티오피아 아뉴악이라는 종족은 불이익과 피해를 받으면서도 신고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아뉴악 여인 중 한 명은 소말리 3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 결국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또 급한 수술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사들의 대부분이 소말리 인이어서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정부군의 대량학살을 피해 도피한 사람들로써, 현재 이곳 다담에 4,000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고 현재 난민촌에 3개의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현지 한 관계자는 “이들이 오기 전 다담 난민촌에는 교회가 없었으나 이들로 말미암아 캄캄한 밤의 등대 불빛처럼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난민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지내며 질서와 평화 그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도우며 지내고 있는 이들은 짙은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종족과 달리 나일강 계열에 속한다. 이들은 종족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종족으로 행세할 때가 많으며 죽음과 체포의 위험을 무릅 쓰고 탈출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여도 감내하는 수밖에 없으나 예민하고 복잡한 식량문제를 제외한 다른 물품, 어린이 옷가지, 여자 및 아기용품 등으로 도울 수 있다”말했다. 또한 “이곳 교회에는 담임목사가 없어 질 좋은 양육과 훈련을 해줄 수 있는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이들을 위한 좋은 목자가 속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코리 텐 붐』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 천사들의 밀실을 지키는 수호자 코리 텐 붐

누군가 얼핏 이야기 한 것을 듣고 집어 든 책 '코리 텐 붐'. 그런데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검색해 보고는 마음에 은근한 실망감이 올라왔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극적으로 삶을 드리며 오지의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삶을 부대끼는 그런 선교사의 이야기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기대가 무색해졌다. 책을 읽어내려 갈수록 그녀와 그녀의 가정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10개월 후 코리는 석방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곳저곳에서 전했다.

핀헨의 한 교회에서도 코리는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설교했다.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하며 인사했다. 거의 마지막 무렵 금발의 키가 큰 한 남자가 다가왔다. 순간 코리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샤워실을 떠올렸다. 바로 그였다. 손에 총을 들고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던 독일군 간수였다. 그가 코리의 손을 잡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코리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오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무슨 힘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정말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코리는 이렇게 60개국을 넘는 나라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1983년 아흔한 살의 생일날 숨을 거두었다.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질문이 들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와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생

명을 걸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코리와 그의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안락과 안정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하게 당하는 일 앞에서 분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과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는 믿음은 혹독한 수감생활 중에서도 코리와 그의 언니 베시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과 죽음 가운데 내 당장의 필요보다 절박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 주님을 구하고 따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지독히도 깨어지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깊은 수렁에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당면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 죽음의 위협이라는 현실의 깊은 수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 코리와 그의 가족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 나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세상 끝 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실 것을 바라본다.

(코리 텐 붐 | 자넷 & 제프 벤지 지음 | 239쪽 | 예수전도단)

명을 걸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코리와 그의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안락과 안정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하게 당하는 일 앞에서 분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과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는 믿음은 혹독한 수감생활 중에서도 코리와 그의 언니 베시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과 죽음 가운데 내 당장의 필요보다 절박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 주님을 구하고 따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지독히도 깨어지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깊은 수렁에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당면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 죽음의 위협이라는 현실의 깊은 수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 코리와 그의 가족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 나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세상 끝 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실 것을 바라본다.

(코리 텐 붐 | 자넷 & 제프 벤지 지음 | 239쪽 | 예수전도단)

Y.H



후원자 명단

(2011년 9월 15일 ~ 27일, 가나다 순)

△개인

권숙진 김정훈 박경희 박인원 배용구 송경희 오세평 유수경 장부필 무명x1

△단체

순회선교단(복음기도모임)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동역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RETURN TO THE GOSPEL
"다시복음앞에"

집회안내
주제 / '다시복음앞에, 오직복음으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6:1)
일시 / 2011년 12월 13일 ~16일 (3박 4일)
장소 / 선한목자교회 지하3층 본당 (성남 북정동)
주최·주관 / 복음기도동맹
참가대상 / 모든 그리스도인
참가회비 / 헌금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400-800 인천 중구 향동7가 1-44번지 요셉의창고 내
사무실 전화 / 070-7447-0301, 070-7417-0815
휴대폰 / 010-9440-4365
웹사이트 / http://www.gospelprayer.net
이메일 / gpall@paran.com
*웹사이트에서 참가자 접수 중

순회선교단 전국 7개 지역 순회집회 (10월 일정)

대전 : 10/6(목)~7(금), 보문교회(담임목사 김용우)
문의 : 010-5132-4641

부산 : 10/10(월)~11(화), 부민교회(담임목사 박삼우)
문의 : 010-8810-4641

대구 : 10/13(목)~14(금), 삼성교회사랑의비전센터(담임목사 이정인)
문의 : 010-4108-4641

전주 : 10/24(월)~25(화), 전주온누리교회(담임목사 정용비)
문의 : 010-5146-4641